

TV드라마에 나타난 선택의 스토리텔링*

- 다중인격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

박 명 숙**

차 례

- | | |
|---------------------|--------------------|
| 1. 서론 | 3. 헤게모니적 선택의 스토리텔링 |
| 2. 탈중심적 선택의 스토리텔링 | 1) 이야기의 공여와 재현 |
| 1) 정체성에 선행하는 선택욕망 | 2) 이야기 들려주기와 교환 |
| 2) 다중인격에서 복수주체로의 이행 | 4. 선택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

국문초록

이 연구는 TV드라마 속 다중인격의 등장인물에 나타난 ‘선택’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선택’의 동시대적 위상 및 해당 주체의 선택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최근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을 이해하는 편린이 될 터이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복잡계 등의 과학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선택의 생태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재개념화하고 있다. 다중-이질 주체의 선택, 기준에 따른 선택에서 선택 집적에 의한 기준이라는 기준-선택의 도치, 미래 시점의 선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20870).

** 창원대학교 강사.

선택의 스토리텔링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위상과 관련한 대중적 감수성은 TV드라마의 스토리텔링에서, 특히 다중주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보다 선명하게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높은 시청률과 한류드라마라는 위상, 대본집 출간 등으로 대중성 확보와 자료적 가치의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MBC의 <킬미힐미>와 SBS의 <괜찮아 사랑이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드라마에 나타난 선택의 특징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 인격과 외부 인격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남자주인공들의 탈중심적 선택의 특징이다. 그것은 정체성에 선행하는 선택 욕망으로서 선택 행위 자체의 원초성을 드러낸다. 주인공들의 선택 훼손을 통해, 선택 행위는 근원적으로 욕망에 바탕을 둔 것이며 불안정하고 비절대적이어서 여기에 합리성을 명명하여 맹신하는 것은 허구임을 보여준다. 또한 다중인격에서 복수주체로의 이행 과정에 보이는 선택의 신비성이다. 복수주체는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이질감 없는 스토리텔링으로서 선택 생태계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러한 탈중심적 선택은 여러 인격을 살고 싶은 충동과 불가항력적 구원의 사랑을 꿈꾸는 대중의 대리만족으로서 시청률의 실질적 동인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적 선택 이론 혹은 선택 조작에 대한 반기이기도 하다. 시청자(향유자)는 선택을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해한 창조적 영역의 무엇으로 남겨두는 데 공감한다. 그러기에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연민과 선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자 주인공들이 중심 인격을 되찾는 헤게모니적 선택의 특징은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의 공여와 재현이다. 지속적 청자의 조력으로 다른 인격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인격에게 이야기를 공여하고 그 인격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심 인격은 헤게모니를 얻게 된다. 또한 이야기 들려주기와 교환이 있다. 주인공이 시인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애써 외면하며 무의식으로 억눌러 부정

했고 사회적 퍼소나로 포장하여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유년의 내밀한 이야기를 외부 인격에게 들려줌으로써 통합적 인격을 도모하게 된다. 이야기는 헤게모니 장악의 강력한 도구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를 활용할 때, 이야기 가치의 인정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주인공들은 각 인격들로 하여금 그들 이야기를 재현하게 하여 일종의 완결을 짓는 기회를 주는 한편, 중심 인격과 이야기 교환의 가능성을 언급해 줌으로써 인정의 신뢰를 마련한다. 선택이 절대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현실에서, 시청자(향유자)는 선택의 방향을 이야기의 속성에 두는 데 동의하였다. 총체성을 떠나거나 지속가능한 이야기를 향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주제어 : TV드라마, 선택, 스토리텔링, 다중인격, 탈중심적 선택, 헤게모니적 선택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TV드라마 속 다중인격(Multiple Personality)의 등장인물에 나타난 ‘선택’의 스토리텔링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선택’의 동시대적 위상 및 해당 주체의 선택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최근 드라마의 스토리텔링¹⁾을 이해하는 편린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선택’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처럼 ‘선택’은 일상에서 평이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생물학적, 심리적, 경제적, 법적, 철학적, 문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폭넓게 이루어지고

1) ‘스토리텔링’은 주지하다시피 스토리, 담화, 스토리로 변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즉 이야기 자체로서 ‘콘텐츠’이며 이야기로 하는 ‘활동’이자 이야기를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른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문맥에 따라 방송대본, 이야기, 이야기 전략, 이야기로 하기 등이 된다.

있다. 선택이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행위이자 사건이면서 인간의 본연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선택은 의지이자 행동이며 취향, 이성, 신념, 성찰, 상황을 은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이 곧 선택의 연속이며 삶의 이야기는 선택의 그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선택’은 주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 나, 우리라는 주체 없이는 선택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가늠자로서 ‘선택’이라는 가시적 행위는 매우 유효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관심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언급한 그것처럼 ‘선택’보다는 선택을 하는 주체에 방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에 관한 여러 담론들이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해하는 기제로 이어졌다. 주체의 형성이나 성격, 그 이면을 살피는 가운데 인성의 특수함과 삶의 결을 드러냈고 이로써 선택의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문학연구에서 주체와 선택행위의 이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영역이 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도 ‘선택’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구체적인 선택행위로써 보편적으로 다뤄져왔다. TV드라마에서 ‘잘 생긴 남자주인공의 착한 여주인공 선택’, ‘친구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는 선택’, ‘돈을 위해 사랑을 버리는 선택’, ‘종가집 며느리로서 개인적 삶을 버리는 선택’ 등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것으로서 선택의 전형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즉, 스토리 전개의 주요 동력이자 오래된 모티프 가운데 하나이며 대중심리의 도덕적 비학(秘學)에 관한 것으로서 ‘선택’은 스토리텔링 이해의 보편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택의 다중·이질 주체의 등장, 기준에 따른 선택에서 선택에 따른 기준이라는 기준-선택의 도치, 미래 시점의 선택, 선택에 의한(혹은 위한) 삶의 스토리텔링화 현상 등은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 알고리즘, 복잡계 등 과학기술의 초고속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선택’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겠다. 선택의 집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히 공유되어 이

것이 삶의 표본이 되는가 하면 생명활동은 선택을 통해 스토리텔링화 되어 드라마적 삶이 일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선택’은 삶과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듯 재개념화하고 있는 선택은 그 토대 역시 가상현실, 과도현실, 증강현실에 이르고 있어서 시·공간의 경계를 해제시키고 있다. 그러가 하면 선택의 주체 역시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른다. 그러니 선택은 인간 정체성의 틀을 벗어나서도 가능한 것으로서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혼란스러워졌고, 가상현실과 과도현실, 증강현실에서의 선택 진위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선택에 있어서 다중주체는 기술에 기대어 이를 현실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수용이 용이해지는 것이다. 또한 선택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이나 사회의 도덕적 선택부터 기계에 의한 시스템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택의 고유한 범주로서 정체성과 합리성에 따른 것부터 일관된 알고리즘에 따른 것 혹은 다수 경험의 수량적 결과인 것, 대중적 조작에 의한 것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하다. 이는 다양한 선택 기준의 부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에 못지 않게 선택에 의해 기준이 세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회적 담론은 여전히 합리적 선택론이 지배적이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개인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월적 선택을 위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암묵적 약속이 사회 활동의 근간이다. ‘재개념화한 선택’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선택의 생태계’의 등장과는 별도로 이데올로기로서의 선택은 변함없이 강건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선택에 관한 스토리텔링 혹은 선택을 위한 스토리텔링 등에서 보듯이 ‘선택’과 ‘스토리텔링’의 조합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택의 새로운 징후들이 스토리텔링과 혼하게 관계 맺는다고 하겠는데 이는 먼저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선택 생태계’ 내의 조직과 시스템 및 주체가 갖는 다층성과 다양성, 상호작용성, 비선

형성 등의 특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적 선택’이 공공영역에서 통용되는 힘은 해당 스토리텔링의 소구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소구력(appealing power)은 이야기가 지닌 매력으로 향유자의 규모를 결정하며 이야기의 지속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스토리텔링을 좁은 의미로 디지털 서사에 국한할 때 ‘선택’의 위상과 관련한 대중적 감수성은 TV드라마의 스토리텔링에서, 특히 다중주체(multiple personality)라고 하는 주체의 특성이 분명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MBC의 <킬미힐미>(진수완 극본, 2015.01.07.~2015.03.12.)와 SBS의 <괜찮아 사랑이야>(노희경 극본, 2014.07.23~2014.09.11.)에 등장하는 다중인격의 등장인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두 드라마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케이블, SNS 등에서 다국적으로 시청(향유)되었다. 또 다채널 시대에 12~13%라는 높은 시청률로써 스토리텔링의 흥행성과 시장성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각종 드라마 시상식에서 연기상과 대본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그 대본이 출간되어 3, 4쇄를 거듭하면서 확고한 영상텍스트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선택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이자 자료적 가치이다.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 연구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다중주체를 다룬 문학작품에 관한 연구, 둘째, TV드라마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셋째, 선택의 속성에 관한 연구 등이다. 이들은 문학 연구이거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일환이거나 심리학적, 경제적 연구의 일부이기도 했다. 곧 드라마와 스토리텔링 및 선택을 아우르는 연구는 부재하였는데 이는 ‘선택’이 새롭게 대두된 문제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의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영역의 선행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본 연구가 ‘선택’과 ‘주체’는 물론 ‘스토리텔링 현상’을 새롭게 인지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탈중심적 선택의 스토리텔링

1) 정체성에 선행하는 선택욕망

<킬미힐미>와 <괜찮아 사랑이야>에 등장하는 인격 장애²⁾를 겪는 주인공들은 한 신체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거나 외부에 자신의 인격을 하나 더 두는 특수한 주체라고 할 것이다. <킬미힐미>의 남자주인공 차도현은 무려 일곱 개의 인격으로 변한다. 재벌가의 손자인 차도현은 수시로 폭력적인 신세기, 자살충동의 안요섭, 요섭의 쌍둥이 여동생 요나, 원앙어선을 타는 페리 박, 7세의 여아 나나, 의문의 인격 X가 된다. 또 <괜찮아 사랑이야>의 인기 추리소설 작가 장재열은 고등학생 소설가 지망생 한강우라는 허상의 인격과 교유한다. ‘제2의 자아를 보는, 고차원인 환시’를 겪는 성인 장재열은 자신의 유년 인격인 한강우와 공생한다.

그래서 <킬미힐미>와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은 특별한 시·공간을 산다고 하겠는데 하나의 시간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또, 하나의 공간에, 여러 나의 개별적 지인들과 동시에 조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서 단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21세기의 인류는 인터넷과 SNS, 모바일 등의 캐릭터 설정을 통해 유사한 경험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동시에 여러 공간에서 혹은 동일 공간에서 여러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중 인격의 선택 문제는 특수한 스토리텔링이면서 한편으로

2) ‘다중인격장애’는 ‘해리성정체성장애’로서 ‘정신분열’과 구분된다. 전자가 인격의 분열이라면 후자는 감정과 인지의 분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결국 인격에 관여하는 장애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기에 1970년대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다뤄지기도 했던 것이다. 다중인격장애는 주체가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인격을 모른다고 한다면 정신분열은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용어의 의학적 구분과 이해에는 거리를 두며 그 동질성에 기초하여 접근한다.

는 선택의 보편적 특징을 확장해서 보는 계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킬미힐미>와 <괜찮아 사랑이야> 주인공들의 선택은 특별하다. 각각의 인격은 나름대로의 선택 욕망에 따라 어떠한 선택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기준이나 연속적 동일성에 해당하는 중심이 없다. 일곱 개의 교대 인격을 지닌 차도현은 그 인격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에 서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여러 인격 가운데 어떤 중심이 있어서 그에 의거해 선택된 인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인격들이 출몰하는 형국이다. 장재열 역시 한강우와 만남은 예측불허 속에 이루어진다. 외부 인격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하지만 인지했을 때에도 강우의 등장은 여전히 불연속적이며 조율 불가이다. 이것을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분명 인격과 관련한 여러 개의 선택지(차도현, 신세기, 요섭, 요나 등)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가 가려 뿔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탈중심적이고 비인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중심적·비인지적 선택은 자기 서사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물론 지속적 사고와 행동도 어려워진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는 도현. 더욱 가빠지는 호흡!
 도현 (이를 악물고 간절하게) 안 돼.....안 돼.....제발.....채연이 누나가
 있어. 밖에 기준이 형이 있다구.....안 돼.....!!!!
 경련하듯 괴로워하던 도현의 고개가 어느 순간 폭 꺾이고, 잠시 후
 정적 속에 천천히.....고개를 드는 도현의 변한 눈빛! 세기다!!!!
 (<킬미힐미 1>, 82쪽)

썬 16. 병원 처치실, 같은 날, 밤.

재열(초췌한, 머리에 외과 치를 받은) 보호사들에게 사지를 묶여, 눈물이 그러한 채, 구석을 보면, 강우가 구석에 앉아. 다친 몸으로(맨발에 피가 난).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몸을 뒤흔(루게릭처럼).

재열 (맘 아프고, 힘든, 강우처럼 기침을 격하게 하고, 루게릭처럼 발
이 뒤틀리고, 몸을 뒤트는)

동민 (E) 그의 루게릭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한강우와의 공유병이며,
통증장애이며, 망상장애죠.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괜찮아 사랑이야 2〉 230쪽)

이러한 탈중심적·비인지적 선택의 배경에는 인물의 정체성에 선행하
는 선택 욕망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그 기준을 내재한 개인의 취향
문제이자 정신적 판단 능력 혹은 의지의 일종으로 여긴다.³⁾ 그러기에
선택을 통해 그 주체가 어떠한가를 가늠하여 이를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도 한다. 하지만 다중인격과 그에 준하는 정신분열의 장애를 겪고 있는
〈킬미힐미〉와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일반적 함의
를 벗어나 있다. 차도현에서 신세기로, 신세기에서 페리 박으로의 인격
선택은 합리적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장재열이 한강우라는 외부 인
격을 선택한 것 역시 장재열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선택은 정체성에 근거한 인지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주
인공들이 장애를 앓게 된 배경을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드
라마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그릇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린 나
이라는 이유로 선택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 당한다. 차도현은 유년 시절
아버지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으며 장재열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매질과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그 폭행을 피해 마을 공
동변소의 널판 아래 숨기도 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싶었지만 그런 상

3) 이와 관련하여 선택(prohairesis)을 ‘일반적으로 의지, 결의 등으로 옮겨질 수 있
는 말’이라고 언급한 에픽테토스의 윤리학이 있다. “prohairesis’는 인간의 정신
적 능력, 의식, 성격, 판단, 목적, 욕구 등의 견지에서 ‘인간(인격)’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즉 ‘prohairesis’는 자아이고, 신체로부터 추상화된 것으로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에픽테토스 『담화록』』,
김재홍,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0호, 2006, 32쪽.

황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는 어린 도현과 재열의 처지는 원하지 않는 폭압적 삶을 강요받고 선택 욕망을 좌절당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동들도 부모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제한 받는다. 이는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때 부모와 어른은 선택의 표준으로서 옳음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어린 주인공들과는 구별된다. 선택 욕망을 봉쇄당한 주인공들은 결국 방어기제로서 다중인격과 정신분열이라는 병리적 선택에 이르게 된다. 선택 욕망의 실현을 위해 과잉 정체성 혹은 기억상실이 된 것이다. 선택은 통제력의 가시화이다. 한 개인은 선택 행위를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굳혀 간다. 그러기에 차도현과 장재열처럼 극한 상황에서 좌절당한 선택 욕망은 왜곡되고 이로써 주체가 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한편 이는 성공적 삶은 합리적 선택에서 비롯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선택에 역행하는 경우이다.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 선택’⁴⁾은 개인의 안정과 성취, 만족과 성장을 담보하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효율적·성공적 선택으로, 노력하면 누구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은 이를 대변한다. 하지만 차도현과 장재열의 선택 훼손을 통해 선택행위는 근원적으로 욕망에 바탕을 둔 것이며 불안정하고 비절대적이어서 여기에 합리성을 명명하여 맹신하는 것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킬미힐미>와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써 선택을 본능의 문제로 스토리텔링한다. 선택은 보편적으로 문화·사회적 정체성과 정보와 경험, 감각적 판단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면서 근원적으로는 그 좌절을 무의식을 통해서라도 구현하고자하는 욕망인 셈이다. 드라마는 선택지가 하나

4) 합리적 선택에 관한 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칸트 등 장구한 역사를 통해 그 철학적 의미를 더해 왔다. 그러나 그 현대적 의미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인격의 병리적 증후들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선택이 욕망이자 본능이며 일종의 쾌감임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선택 행위에 내재된 원초성을 다시금 주목하게 한다.

2) 다중인격에서 복수주체로의 이행

정체성 장애 혹은 인격 장애의 자기 서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등장인물은 주로 범죄, 스릴러 드라마에서 그려졌으나 최근에는 마치 트렌드인양 장르에 무관하게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이 그만큼 피소나(persona)와 캐릭터(character) 곧 사회적 역할과 개성, 심지어는 상황에 따른 자아연출에 이르기까지, 또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술적 가능성으로 이중, 삼중의 주체를 살고 있기에 그러한 등장인물을 기시감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킬미힐미>나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처럼 질병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황 자아를 연출하며 사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 및 공감의 여지들이 커진 것이다. 즉, 대중적 인식은 정체성의 선택가능성과 그와 관련한 복수주체⁵⁾에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 여러 주체를 연출하는 것을 즐기며 이를 역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리온 (리진의 어깨에 팔을 걸어 어깨동무하며) 잘 들어봐요, 선생님.
오메가로서의 저는, 신비한 천재 추리소설 작가로서 옴프파탈적인 인생을 살지만. 오리온으로서의 저는, (어깨동무한 손으로, 밤하늘의 오리온좌를 가리키며) 저 방황하는 별들처럼 그저 한없이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덧붙여, 오ହି로서의 나의 삶은,

5) 본 연구에서 ‘다중인격’은 ‘해리성 정체감’이라는 정신의학에서 일반화된 의미로 인용하며 ‘복수주체’와 관련해서는 다중자아, 대체자아 등 유사 어휘들과의 섬세한 구분보다는 그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범박하게 ‘여러 개의 주가 되는 존재’로 풀이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 안의 나들’이라고 하겠다.

리진 언제 또 세 명이 됐나? 오휘는 또 누구야?
 리온 (씨익) 여자들 꼬실 때 가끔 씹니다. 오리온이라는 이름이 너무
 쪼코파이스러워서. 그녀들은 저를 오휘라고 부르죠.
 리진 (끄응) 상담 시간 끝났습니다. 다중인격이네요.(가려는데)
 리온 (잡아 앉히며) 어쨌든 그렇게 나를 여러 명으로 분리시킴으로
 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킬미힐미 1〉, 127쪽)

한편 그것이 주체에 의한 “마음의 전략”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곧 탈중심적 선택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이 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 전략한다. 〈킬미힐미〉의 석호필 정신과 의사의 대사에서와 같이 다중인격은 “고통스런 기억을 자신의 기억체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그렇게 해리된 상처와 기억들을 대신 감당해 줄,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들을 만들어내는 해리성 주체장애”이다. 주체가 ‘괴롭고 위험하며 외롭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S#48 플래시백(3부 S#49편집)

리진 근데 만약에 말이야..... 그게 마음의 전략이 아니라면 어떨까?
 리온 뭐?
 리진 (혼잣말처럼) 자의에 의한 전략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라면...보
 호색이 아니라 울가미라면.....어떨까? 기분이....불행하겠지...?
 위험하겠지...? 괴롭겠지...? 많이....외롭겠지?

(〈킬미힐미1〉, 552쪽)

다시 말해, 다중인격과 정신분열은 인격 장애이지만 복수주체는 인격 전략이다. 〈킬미힐미〉의 차도현과 〈괜찮아 사랑이야〉의 장재열의 병증은 탈중심적 선택의 결과이기에 치료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다중역할을 선택할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드라마는 또 하나의 탈중심적 선택을 보여 준다. 그것은 다중인격에서 복수주체로의, 즉 ‘장애’에서 ‘전략’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의 헌신적 사랑이다. 차도현과 장재열은 자신들의 병리적 증상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이별을 선택한다. 조력자인 오리진과 지해수와의 이별은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선택 기준에 기댄 것이다.

도현 (담담하게 위약) 가족들은 내가 회사를 물려받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여가자 아니라. 승계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리진 (그저 보기만)

도현 정리하자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오리진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울컥 함을 누르며, 애써 담담히) 오늘부로...계약을 종료합니다.

리진 (눈물 확 고이고)

도현 (애써 담담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킬미힐미 2〉, 301쪽)

해수 (진지한, 눈가 붉은) 의부 사건이 일어나던 날, 동민 선배는 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이해하지만, (강조) 아니, 그날 너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재열 (맘 아픈)?

해수 널 믿는 형과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거. 이번에도 너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어. 나라 버리고 간 거. 내 도움을 거부한 거. 이제 이 전화가 끊기면...난 다신 죽어도 너한테 전화 안 할 거야. 너처럼. 나도 한다면 해.

(〈괜찮아 사랑이야 2〉, 272쪽)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시선이 되어 주는 연인으로 재회하게 되는데 이는 불가항력적이고 기준이 없으며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점에서 탈중심적 선택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년의 남자주인공들이 보여줬던 강압과 부정의 탈중심적 선택과는 달리 자발적·공정의 탈중심

적 선택이다. 전자는 인격과 관련하여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병폐가 분열이며 성과는 병리적이거나 욕망 구현이었다. 반면 후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선택지 가운데 의지를 넘어 선택에 이르는 것으로서 그 병폐는 중독일 것이며 성과는 치유였다. 다중인격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연인인 오리진과 지해수의 헌신적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복수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장면이 이를 잘 설명한다. 자신 안의 ‘나들’을 모순된 인격으로 간주하여 억압하고 제압하던 것을 멈추고 비로소 상황에 따른 필연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다중인격과 복수주체는 둘 다 탈중심적 선택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이행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탈중심적 선택에는 그 불가항력성으로 인해 분열과 병리적 증상의 좌절이 따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뜻밖의 사랑과 치유’라는 삶에 대한 신비와 환상의 대중적 갈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괜찮아 사랑이야>에 등장하는 박수광과 오소녀의 사랑에도 잘 드러난다. 틱장애의 뚜렛증후군을 앓는 박수광은 품행장애의 오소녀를 짝사랑한다. 수광은 거짓말과 일탈을 스스럼없이 해대는 오소녀와 몇 번이나 절교하려고 하나 그러지 못하고 매번 오소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박수광은 뚜렛증후군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소녀에게로 향한 마음도 통제되지 않기에 탈중심적 선택의 양자를 아우른다고 하겠다. 발작으로 인한 자기 부정과 몸과 마음의 분열을 겪게 된 박수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가해한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자존감을 갖고 치유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리하여 소위 말하는 가성비 높은 효율적 선택만이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중의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효율성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대중적 환상은 삶의 신비가 탈중심적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것이다. 즉 대중은 삶이 신비라는 점에 동의하며 불가항력 속에서도 불가사의가 존재함을 믿음으로써 선택의 불확정성을

극복한다. 이러한 믿음이 TV드라마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하여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선택은 그들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 즉, 선택은 대중적 모델을 따르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TV드라마를 통해 제시되고 공유되는 선택들은 대중 인식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복수주체와 영원한 구원자의 스토리텔링은 시청자를 유인하는 흥미로운 소재이자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본 드라마의 시청률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나아가 현실의 선택에 대해 신비의 의미를 덧입히는 확장성을 띠다고 하겠다.

3. 헤게모니적 선택의 스토리텔링

1) 이야기의 공여와 재현

<킬미힐미>에서 남자주인공은 애초에 자신의 다중인격들을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취급하여 소멸시키려 하고 외면·부정한다. 그러다가 치유의 조력자인 여주인공을 만나 그것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용은 역설적으로 중심 인격을 회복하는 실마리가 되는데 복수주체로의 이행은 헤게모니의 획득과 같은 형상이다. 즉 중심 인격은 ‘나’ 안에 있는 여러 인격들의 자발적 동조를 얻어서 이뤄낸 것으로써 그람시가 언급했던 합의에 의한 비고정—변화의 헤게모니적 선택의 결과라고 하겠다. 수용된 다중인격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비중이 작은 복수주체로 유동적으로 머무르면서 인격 장애를 넘는다.

차도현이 자기동일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헤게모니 획득의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이야기’가 있다. 타자와 같은 다중인격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상상과 언어 속에 중심적 선택의 불씨를 살려 놓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 안에 있는 개별 인격들의 선택 이야기를 끄

임없이 모아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로써 다중인격이 아닌 복수주체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싶어함을 볼 수 있다. <킬미힐미>의 인격인 신세기와 페리 박, 요섭, 요나, 나나 등은 타투, 카고 바지, 책, 감쪽한 미니스커트, 곰 인형 등의 각기 다른 은유의 이야기를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의 은유와 그에 따른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인정한 유일한 인격의 차도현은 지속적인 정체감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차도현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출현한 신세기 등의 인격을 감시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신의 일정을 관찰하게 하고 집안에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해 둔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로는 결코 이야기 전체를 장악할 수 없다. 오히려 각각의 인격은 그들의 등장을 막으려는 차도현을 적대시하여 더 빈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교대인격의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한 가운데 오리진이라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이야기 청자의 등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차도현이 다중인격의 개별적 이야기를 장악하게 된 데에는 각 인격들의 자발적인 동조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오리진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기억의 봉인’이 풀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오리진이 전체 이야기의 청자였으나 차츰 차도현이 각 인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공감하여 보듬어주는 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각 인격의 이야기들을 잘 못된 오작동의 정보처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헤아린다. 즉 이야기의 각 에피소드를 이어주는 오리진의 활약으로 페리 박이나 신세기, 요섭, 요나가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차도현과도 나누려고 한 것이다. 각 인격이 이야기를 차도현에게 공여함으로써 다중인격의 헤게모니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넘어간다. 이는 차도현이 자신의 이야기의 우월성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고 이에 각 인격이 합의하는 것으로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S#45 도현의 무의식

도현 근데 왜 떠나기로 결심했어?

세기 기억의 봉인이 풀렸으니 이제 나도 필요 없어졌잖아.

도현 너도 같이 살아가는 거야. 내 안에서. 몸과 시간이 내 것일 뿐이지. 필요하면 부를게. 도와줘.

세기 싫어. 너 혼자 해결해. 시간하고 몸을 준다면 모를까.

도현 썬 적은 혼자 다하면서 치졸하기는.

세기 명심해. 니가 또다시 세상에 겁을 먹거나, 나약하게 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좋을 걸?

도현 (말없이 세기를 향해 주먹을 내밀며) 잘 가.

세기 (절대 안 해줄 것처럼 외면하더니, 마지못해 해준다는 듯 주먹만 내밀어 맞부딪쳐준다) 잘 살아.

도현 어이, 신군.

세기 뭐야 또.

도현 너는 나야.

세기 나는 너지. 그러니까 품 나게 좀 살아.

(〈킬미힐미 2〉, 523-524쪽)

여기서 헤게모니 장악을 인정하는 표식은 각 인격의 이야기 핵심의 ‘재현’이었다. 신세기는 첫사랑인 오리진과 둘만의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을, 페리 박은 그의 오랜 소망대로 자신의 이름을 딴 배를 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각 인격은 마지막을 고한다. 이야기가 억압될 때는 각 인격이 자신의 이야기—위험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신세기, 의리와 풍류를 즐기는 채남의 페리박, 건디기 힘든 시간을 스스로 마감하고자 하는 요섭—를 더 풀어내기 위해 차도현의 몸에서 뒤죽박죽 출몰하였지만 이야기를 공여하고 차도현의 공감을 얻고부터는 수그러든다.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이야기를 재현함으로써 이야기와 인격의 종결을 동시에 고하게 된다. 두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에 따르자면 시간은 이야기에 다름 아니며 이야기가 없으면 인격의 시간도 없는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도권을 띠는 헤게모니적 선택은 그 의미가 ‘한 대상이나 방향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었으나 가시적으로는 ‘이야기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정체성 혹은 주체의 존립에는 이야기의 총체성이 관건이라고 스토리텔링된다.

2) 이야기 들려주기와 교환

라캉에 의하면 인격이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때 주체를 지탱하는 심리 구조’를 말한다⁶⁾. 그에 따르면 다중인격 및 정신분열은 주체가 세계와의 관계 맺음 속에서 발생하는 인격의 병리적 증상이다. 라캉은 인간은 다양한 자아상을 순환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자아를 형성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복수주체의 면면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경험 속 자아의 연속성과 동질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괜찮아 사랑이야>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듣기와 들려주기를 통해 이를 구현한다. 감정과 인지의 분열로 외부 인격을 두게 된 <괜찮아 사랑이야> 장재열의 치유를 향한 헤게모니적 선택은 일차적으로 그의 불가항력적 사랑인 지해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강우가 허상이라는 지해수의 주장에 대해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혹시 자기가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어렵사리 하고 강우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을 하게 된다. 이는 타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다.

해수 장재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 전화가 끊기면, 아마도 넌 강우가 또 보일거야. (강조, 차분하지만, 강하게) 그때, 정신 차리고, 니 눈에 보이는, 강우를 똑똑히 봐. 그리고 찾아내. 개는 니 착각과 모순인 걸. (맘 아프고, 눈가 그렇하지만, 단호한) 그래야, 우린 다시 만나.

재열 (맘 아픈, 한쪽 보면)

강우 (교복 입은, 편하게, 재열 주변을 돌며, 자전거를 타는)

재열 (해수에게 가고 싶지만, 눈가 붉어, 그런 강우를 보며, 맘 아픈)

강우는 있어..해수야.

(<괜찮아 사랑이야 2>, 272쪽)

6) 김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46쪽.

이때 ‘듣는다’라는 행위는 청각 작용을 넘어 자신의 선택 행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재열은 비로소 자신에게는 강렬한 실존인 한강우가 가짜라는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한강우라는 외부 인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선택 행위로 소기의 성과에 다다른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즉, 온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장재열의 헤게모니적 선택은 ‘이야기 들려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장재열이 끝내 시인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애써 외면하여 무의식으로 억눌러 부정했고, 사회적 퍼소나로 포장했으며, 차마 입밖으로 내지 못했던 유년의 내밀한 이야기를 강우에게 들려줌으로써 강우와 통합적 인격을 도모하게 된다. 이야기 들려주기를 통해 한강우의 에피소드를 외부 타자의 이야기 아니라 자기연속성의 일부로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한강우 역시 자신의 이름을 장재열의 그것으로 호명하여 이야기의 주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장재열의 헤게모니적 선택을 지지한다. 무서움에 떨던 소년이 장재열 안에 있으며 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른이 한강우 안에 있음을 이야기 교환을 통해 확인한다.

재열 (강우를 보며, 눈가 붉어, 따뜻하게) 우리..애인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만약,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난..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거래. 내가 널 위로하면서, 실은 내 자신을 위로했던 거래.

재열 고마웠다, 강우야. 널 만나고서 알았어.

(E)내가..강한 척해도..의붓아버지의 폭력이, 형의 폭력이..정말 많이 무서웠구나.

(E)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힘없는 내가..참 싫었구나.

(E)맨발로 들판을 도망칠 때...울지 않아도, 나는 너무너무, 무서웠구나.

강우 (따뜻하게, 누가 그렇게, 웃으며) 이제..내가 와도 아는 척 마세요, 작가님.

재열 (맘 아픈, 애써 참고) 어.
 강우 ..다..지나간 일이에요.
 재열 (고개 끄덕이는) 그래, 그때 나는 어렸고, 그 일은 지나갔고, 지금 나는 참.. 괜찮은 어른이 됐다..생각할게.
 강우 그래도 어느 날 내가 문득..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세요, 작가는...나니까.
 재열 (맘 아픈)..그래..
 강우 이제..나, 가요.
 강우 (맘 아프게 보고, 웃으며) 안녕, 한.. 강우.
 재열 (의자에 기대, 울음 참고, 담담히) 안녕..장재열.
 (<괜찮아 사랑이야 2>, 282-283쪽)

물론 이것은 과학적·의학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이야기 들려주기’라는 헤게모니적 선택의 스토리텔링이 시청자(향유자)들의 공감⁷⁾ 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시청자(향유자)들이 믿는 바의 문제이다. 이야기 들려주기를 선택 하는 순간, 분열적 인격의 동조를 얻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렇게 치유가 온다는 공감대이다. 뇌과학과 빅데이터 같은 기술의 발달로 선택의 메커니즘과 알고리즘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선택은 그 조작을 통해 완전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러한 정보들은 과잉되어 심어지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의 공감대는 선택은 통제력 및 창조력과 관련한 것으로서 여전히 불가해하고 예측불가능한 영역에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환상적 계기로도 행할 수 있다는 믿

7) 시청자(향유자)의 공감 즉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정과 동의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시청률에 있다. 아울러 해당 스토리텔링의 확장성 및 화제성으로 따져 볼 수 있다. <킬미힐미>, <괜찮아 사랑이야>의 경우 구글 트렌드에서 각 드라마의 방송 종영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관심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관련 검색어로 ‘킬미힐미 토렌트’, ‘괜찮아 사랑이야 토렌트’, ‘킬미힐미 OST’, ‘괜찮아 사랑이야 OST’, ‘지킬박사’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유튜브 상에 영어자막, 인도네시아어 자막의 드라마 동영상 조회수나 방송대본집 출간도 마찬가지이다.

음이다. 이로써 선택의 기계적 이해를 차단하고 탈이데올로기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정의적 영역의 성취에 있어서 과학적-논리적 기준과는 별개로 선택을 하는 것을 ‘인간 현상’으로 매김할 수 있다. 두 드라마의 시청률은 인간 현상으로서의 선택에 대한 연민이자 그러한 선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지이다. 한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곧 이야기 주체의 헤게모니 획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누가 길게 이야기 하는가’ 혹은 ‘누가 이야기를 끊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대화에 따른 현상만은 아닌 셈이다.

4. 선택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선택이 진공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늘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문화적 맥락, 법의 범주, 인지과학의 뇌 활동, 시장의 조건 등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선택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선택에는 늘 불안이 따른다. 즉 선택의 부자유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이와 관련한 도덕성, 조작가능성 등 선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법적, 심리적, 철학적, 의학적, 경제적으로 장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선택은 그 자유성 여부를 넘어 주체에게 책임을 물으며 또 그에 따라 주체가 정의된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선택은 이러한 차원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조작하는 힘이 무엇 이든 주체가 규정되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효율적인 선택에 강박적으로 굴복하게 되고 그것은 곧 주체가 세상을 만들어가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역논리로 작용한다. 선택 이데올로기는 자기계발서와 같이 개인의 자율성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피로감과 과잉 노력과 집단적 자괴감의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TV드라마는 선택의 헤게모니와 관련한 의미를

조망하고 있기에 특별했다. 선택에 어떤 상수들이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대중이 ‘있었으면’ 혹은 ‘그렇다고 믿는’ 선택을 시사했다.

유년시절의 트라우마로 불가항력적인 다중 인격과 외부 인격을 선택하게 된 주인공들은 선택이 그 자체로서 욕망의 일종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중국에 복수주체라는 전략적 선택을 이루게 된다. 단일주체가 아니라 복수주체로의 이행은 새로운 선택 생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성취는 ‘좋은 선택, 바람직한 선택’에 관한 대중적 담론을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작용한다.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또 이성적, 의학적 소견에서 벗어난 것일지라도 시청자(향유자)가 공히 인정하고 동의함으로써 선택의 일상적 함의에 기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이 갖는 각별한 의미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다중 인격의 등장인물이 심리적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선택 즉 헤게모니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내적으로는 정체성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으로 각인되고 그 자신으로 대표되는 중심 인격은 개개의 다른 인격들에게 행위와 선택을 강제하던 것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여·재현·교환함으로써 선택에 관한 헤게모니를 얻어낸다. 주인공들은 각 인격들로 하여금 그들 이야기를 재현하게 하여 일종의 완결을 짓는 기회를 주는 한편, 중심 인격과 이야기 교환의 가능성을 언급해 줌으로써 인정의 신뢰를 마련한다. 이로써 치유 즉 인격 통합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선택의 불안과 파급력, 책임 부담이 커가는 현실에서, 선택의 방향이 이야기의 속성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중적 감수성은 선택의 기준으로서 총체성을 띠거나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글렌 윌슨, 김문환 역, 『공연예술의 심리학』, 연극과 인간, 2000.
- 김 석, 『에크리-라캉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 2007.
- 김영순, 『스토리텔링의 사회문화적 확장 and 변용』, 북코리아, 2011.
- 김재홍, 『에픽테토스 『답화록』』,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0호, 2006.
- 김정유, 『합리적 선택』, 범한, 2015.
- 김진형,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연구』, 『한국콘텐츠』11권, 한국콘텐츠 학회, 2011, 172-184쪽.
- 노희경, 『괜찮아 사랑이야』, 북로그컴퍼니, 2014.
- 더글러스 러시코프, 박종석 외 1명 역, 『현재의 충격』, 청림출판, 2014.
- 레나타 살레츨, 박광호 역,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후마니타스, 2014.
- 민병욱, 『현대회곡론』, 서울:삼영사, 1997.
- 박명숙, 『한국근대대중극의 스토리텔링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베리 슈워츠, 형선호 역, 『선택의 심리학』, 웅진지식하우스, 2005.
- 브라이언 보이드, 남경태 역,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13.
- 성정희,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타난 남녀서사영역의 선택 문제』, 『문학치료연구』 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71-91쪽.
- 송효섭, 『스토리텔링의 서사학』, 『시학과 언어학』 18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0, 163-181쪽.
- 쉬나 아이엔가, 오혜경 역, 『선택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10.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숲, 2013.
-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자아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2016.
-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 이철우, 『텔레비전 드라마의 표현양식 고찰』,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 문학회, 2006, 247-280쪽.

진수완, 『킬미힐미』, MBC C&I, 2016.

크리스티앙 살몬, 류은영 역, 『스토리텔링』, 현실문화, 2010.

폴 리콕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한귀은, 「희곡과 연극의 시청각적 약호 교육」, 『배달말』 45집, 배달말학회, 2009, 327-352쪽.

<Abstract>

A Study on Storytelling of Choice on TV
Drama
- focus on Character of Multiple Personality -

Park, Myeong-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storytelling about 'choice' found in characters with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appearing in TV dramas. This will be a part of not only figuring out the contemporary status of 'choi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oosing of the subject but also understanding the aspects of storytelling in the latest TV dramas. In the 21st century, scientific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lgorithms, and complex systems is rapidly growing, and also, the ecosystem of choice is changing and becoming reconceptualized dramatically as well. The examples are the choice of multiple-heterogeneous subjects, inversion of criteria-choices from choices based on criteria to criteria grounded on the accumulation of choices, a choice at the future point, and the phenomena of storytelling about choice, and so on. Such contemporary status of 'choice' is more clearly dealt with in the storytelling of TV dramas, particularly dramas where the main character with multiple subjects is appearing. Here, this author takes MBC's <Kill Me, Heal Me> and SBS' <It's Okay, That's Love> as the objects of analysis as they attained high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ratings and had scripts published to obtain popularity as well as significant fruition in terms of material value.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choice found in these dramas are summed up as below:

First of all, the heroes suffering from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persona tend to go with decentralized choice. This is the desire of choice preceding their own identity. It reveals the primitivity of the act of choosing itself. Also, it is the mystery of choice shown in the transition from multiple personality to multiple subjects. Such decentralized choice lets the people having an impulse to live through multiple personality and dreaming of uncontrollable love of salvation at the same time become satisfied vicariously. It is, in fact, the practical drive of ratings and also the rebellion against reasonable choice theory or manipulation of choice in capitalistic society. The viewers empathize with just leaving choice as something in creative area that is unpredictable or inconceivable. That is why they feel sympathy about the choice resulted from it and give support to the beauty of choice.

N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roes' hegemonic choices to recover the main personality are found intensively in the story. Concretely, it is about the provision and reproduction of a story. With constant aid from the listener, other personalities provide a story to the social personality voluntarily, and the personality understands the story holistically, which allows the main personality to obtain its hegemony. Also, there are storytelling and exchanging. The main character talks about his secrete story in childhood that he has been reluctant to accept, trying to ignore, denying through unconscious suppression, and wrapping inside their social persona and unwilling to

talk out to the outer personality in order to build up the integrated personality. Here, we can be again sure of the fact that the story is a powerful tool to seize hegemony. When the story is made use of, it is needed to done preferentially to recognize value of the story. While the main characters have each of the personalities reproduce their stories as a chance to come to an end, they mention the possibility of exchanging stories with the main personality, which builds up trust for recognition. In the reality that choice is broadening its absolute influence, viewers have agreed to place the direction of choice in the attributes of a story. It is either equipped with totality or towards the sustainable story.

This study has again found that in TV dramas, 'choice' is the universal keyword that reflects individuals' identity and social trends and also reveals the psychology of crowds while playing roles as a sight that attracts and collects the public choices and lets us figure out its contemporariness.

Key Words: TV Drama, Choice, Storytelling, Multiple Personality,
decentraized choice, hegemonic choice

■ 논문접수 : 2018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8일

■ 게재확정 : 2018년 4월 16일

